

2016년 3월 16일 공보 2016-3-15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3월 1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3월 16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

□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
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화폐사용행태 서베이를 실시하였음

—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

<붙임>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

문의처 : 발권국 화폐연구팀 팀장 김태형, 과장 김선진

Tel: (02)759-4675, 4585 Fax: 759-4600 E-mail: currencyresearch@bok.or.kr

공보관 : Tel: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

< 요약 >

① 우리나라 가계는 거의 모든 가구(99.7%)가 거래용 현금*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보유규모는 11.6만원으로 연령별, 종사상지위별, 소득별 편차가 크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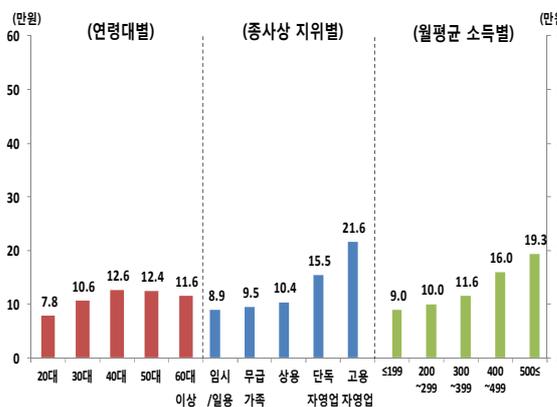
* 설문 당시 응답자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

○ 예비용 현금*은 전체 가구의 27%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 가구들의 평균보유규모는 69.3만원이고, 고령층, 자영업자,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

* 소지중인 현금 외에 비상시를 대비해 집, 사무실 등에 보유중인 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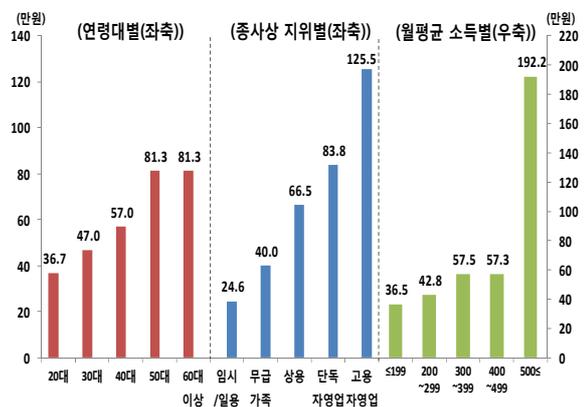
— 권종별 보유금액은 거래용 현금의 경우 5만원권(46.9%)과 만원권(45.1%)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, 예비용 현금은 5만원권(80.7%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

거래용 현금보유액¹⁾



주: 1) 보유 가계 기준

예비용 현금보유액¹⁾



주: 1) 보유 가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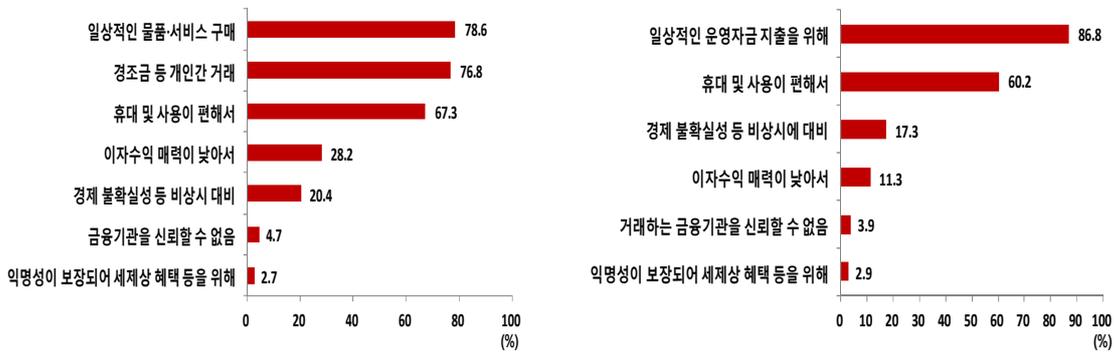
② 기업의 경우 77%가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기업의 현금보유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*

* 기업은 현금보유액을 직접 조사한 가계와 달리 보유금액을 범위 및 비중으로 조사. 다만 가계와 기업 모두 현금 보유에 대한 조사시 정보의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보유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
③ 5만원권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계 및 기업 모두 높게 나타난 가운데 5만원권이 예비적 용도뿐 아니라 거래적 용도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○ 가계의 거래용 현금보유액 중 5만원권 비중(46.9%)이 작지 않으며 가계, 기업 모두 5만원권을 일상적인 물품·서비스 구매 및 운영자금 지출 등 거래적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

가계의 5만원권 보유 이유별 응답비중¹⁾ 기업의 5만원권 보유 이유별 응답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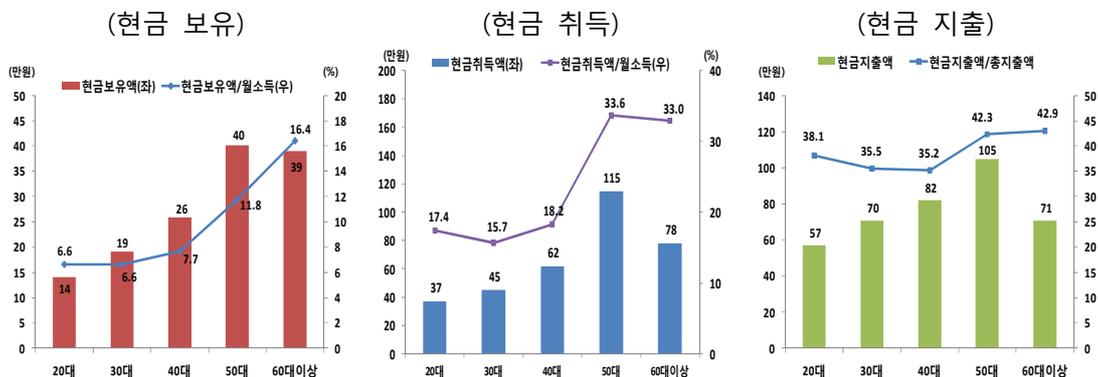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5만원권을 보유중인 가구 기준, 3개까지 복수응답 주 : 1) 5만원권 보유중인 기업 기준, 3개까지 복수응답

④ 현금 보유·취득·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고령층의 현금 선호경향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향후 고령화 진전이 화폐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고령층의 현금선호경향



- ⑤ 향후 금리 하락,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거시경제여건 변화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가계(24.5%, 38.7%)와 기업(14.5%, 19.3%)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늘리게 될 경우 5만원권 선호 비중이 90% 내외로 높음
- ⑥ 가계보유현금이 일반 물품·서비스 구매 목적 이외에 경조금, 용돈 등 개인간 거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
 - 가계의 현금지출중 개인간 거래 지출비중이 53%에 달함
- ⑦ 현금 취득 및 지출에 있어서 가계에서는 자영업자, 기업에서는 음식숙박업종의 현금사용 비중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금융기관 입출금에 있어서도 통상 여타 경제주체들이 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자영업자와 음식숙박업체는 인출뿐 아니라 입금도 많이 함

I 조사 개요

- **(조사 목적)**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**가계와 기업**을 대상으로 **화폐사용행태 서베이**를 실시
- **(조사 기간)** 2015.10.26일 ~ 11.20일(4주)
- **(조사 방법)** 설문지를 통한 가구 및 기업 방문면접조사
- **(조사 대상)** 가계는 전국의 1인 이상 가구의 **가구주 1,100명**, 기업은 종사자수 300인 미만의 **중소기업 1,100개**
- **(조사 내용)** 현금 보유, 취득, 지출 현황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

설문내용 구성

| 설문 부문 | 설문 문항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현금 보유 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별(거래적 및 예비적) 권종별 현금보유금액 - 5만원권 보유 이유 및 취득경로 - 예금금리 및 경제 불확실성 변화시 현금 추가보유 의견 등 |
| 현금 취득 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의 지급수단별 취득금액 - 현금 인출시 평균 인출금액, 경로 및 횟수 등 |
| 현금 지출 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급수단별 월평균 지출금액 - 현금 입금시 평균 입금금액, 경로 및 횟수 등 |
| 기 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만원권 휴대·보관·거래 편의성에 대한 의견 등 |

II 조사 결과

1. 현금 보유 현황

(가 계)

□ (거래용 현금보유규모) 거의 모든 가구(99.7%)가 거래용[■]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보유규모는 11.6만원

- 설문 당시 응답자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
- 권종별 보유금액은 5만원권(5.4만원), 만원권(5.2만원), 5천원권(0.5만원), 천원권(0.5만원) 순으로 5만원권(46.9%)과 만원권(45.1%)이 대부분을 차지
- 연령대별로는 20대(7.8만원)가 가장 적고 40대(12.6만원) 및 50대(12.4만원)가 많으나 연령대별 편차는 거의 없는 편
-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이하 '고용 자영업자')가 21.6만원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(이하 '단독 자영업자')가 15.5만원으로 자영업자의 보유규모가 상대적으로 큼
-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규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

거래용 현금보유액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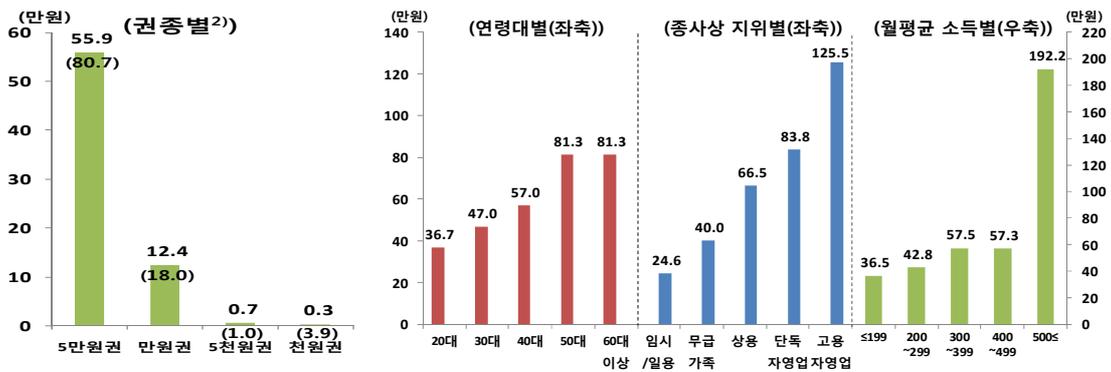


주: 1) 보유 가계 기준 2) ()내는 비중

□ (예비용 현금보유규모) 전체 가구의 27%가 예비용[■]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가구들의 평균보유규모는 69.3만원

- 소지중인 현금 외에 비상시를 대비해 집, 사무실 등에 보유중인 현금
- 권종별 보유금액은 5만원권(55.9만원), 만원권(12.4만원), 5천원권(0.7만원), 천원권(0.3만원)의 순으로 5만원권(80.7%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모두 81.3만원을 보유하여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규모가 크고 편차가 크게 나타남
-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 자영업자 및 단독 자영업자가 여타 계층에 비해 보유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
- 월평균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보유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

예비용 현금보유액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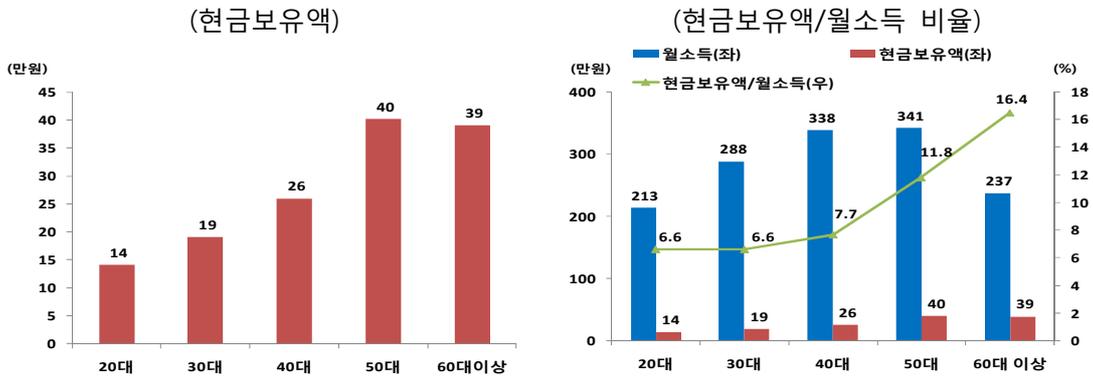


주: 1) 보유 가계 기준 2) ()내는 비중

□ (전체 가계의 평균 현금보유규모) 거래용 현금과 예비용 현금을 모두 포함한 전체 가계의 평균 현금보유규모는 30.1만원

- 연령대별로 보면 50대(40만원) 및 60대 이상(39만원)의 보유규모가 크며 특히 현금보유성향은 고연령대[■]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60대 이상의 현금보유액/월소득 비율은 16.4%로 전체 연령층중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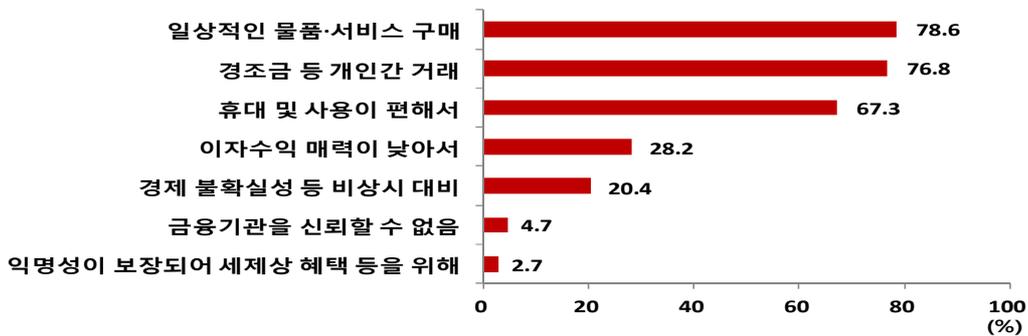
연령대별 현금보유성향¹⁾



주: 1) 전체 가계 기준

- (5만원권 보유 이유) 일상적인 물품·서비스 구매(78.6%) > 경조금 등 개인간 거래(76.8%) > 휴대·사용 편의성(67.3%)이 많고, 다음으로 저금리(28.2%), 비상시 대비(20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5만원권 보유 이유별 응답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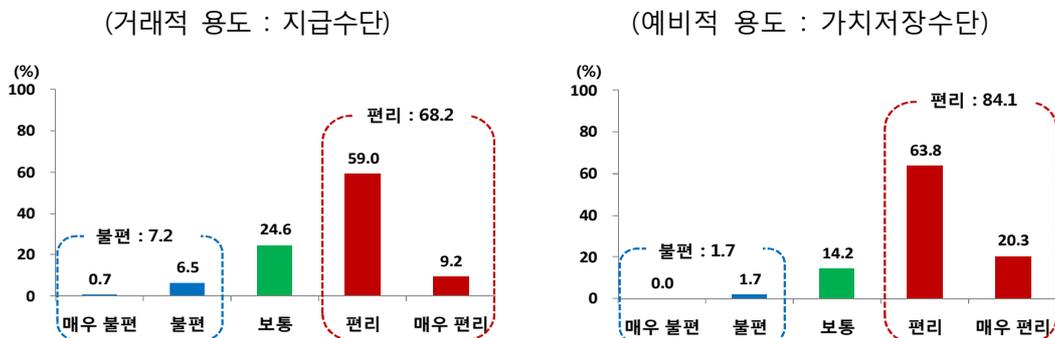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5만원권을 보유중인 가구 기준,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

- (5만원권의 편의성) 5만원권이 거래적 용도와 예비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남

- 예비적 용도의 편의성(84.1%)이 거래적 용도(68.2%)에 비해 높음

5만원권 편의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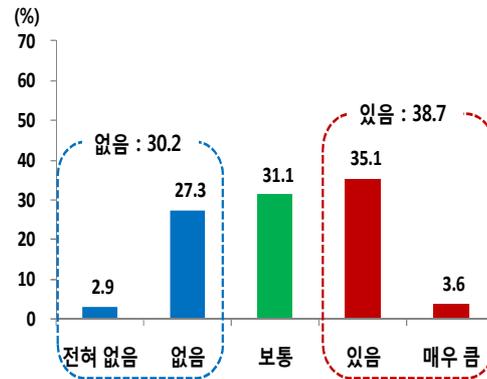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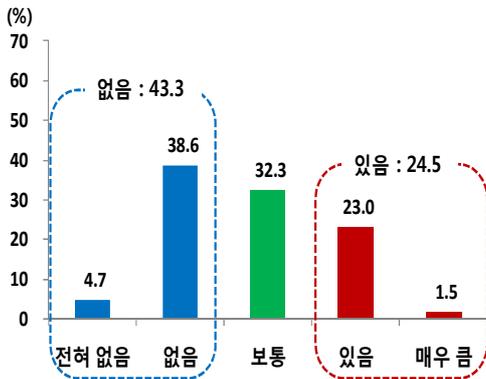


- (현금 추가보유 의향) 향후 금리 하락 및 경제 불확실성 확대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가계 비중은 각각 24.5% 및 38.7%임
- 보유현금 확대시 선호 권종으로는 5만원권이 각각 89.4% 및 93.1%를 차지

현금 추가보유 의향

(예금금리 하락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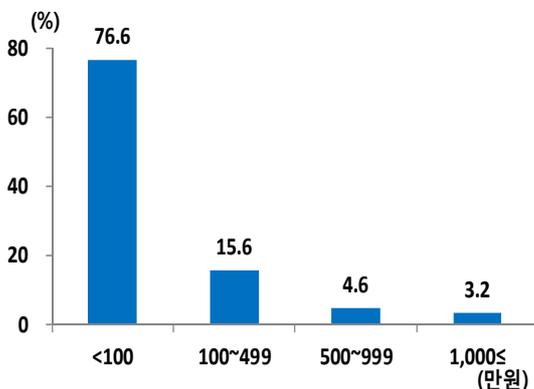
(경제 불확실성 확대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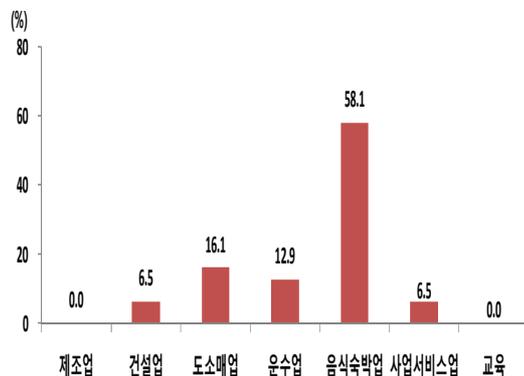
(기 업)

- (현금보유규모)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76.6%에 달하는 반면 1천만원 이상을 보유중인 기업은 3.2%에 불과
- 현금보유가 큰 업종은 음식숙박업(58.1%), 도소매업(16.1%), 운수업(12.9%) 순
 - 업종별 1천만원 이상 현금보유기업 비중

기업의 현금보유규모 분포



업종별 1천만원 이상 현금보유기업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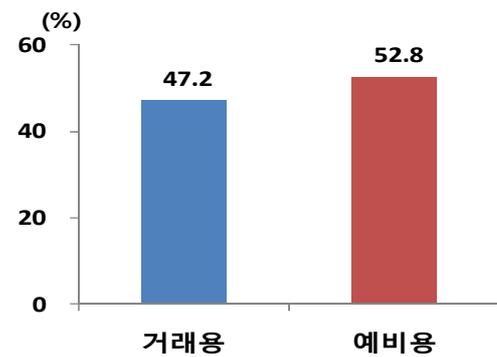


□ (예비용 현금 보유기업 비중) 기업의 41.3%가 예비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, 이들 기업의 보유현금중 예비용 현금 비중은 52.8%[■]

■ 예비용 현금 보유금액을 직접 조사한 가계와 달리 기업의 경우 현금보유액의 용도별 비중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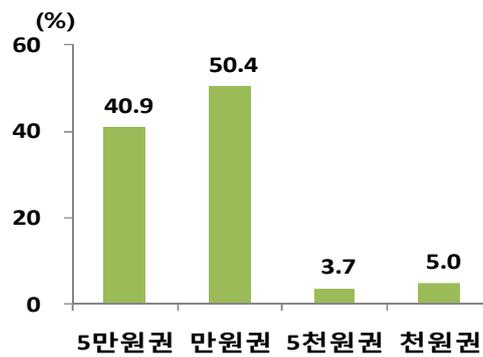
○ 예비용 현금의 5만원권 및 만원권 비중은 각각 40.9%와 50.4%로 비슷한 수준

보유현금의 용도별 비중¹⁾



주: 1) 예비용 현금 보유기업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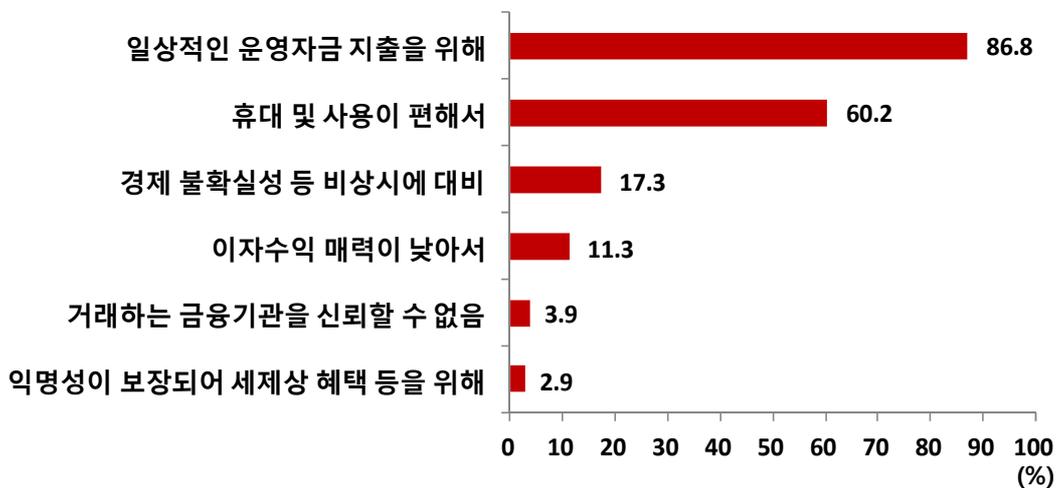
예비용 현금의 권종별 비중¹⁾



주: 1) 예비용 현금 보유기업 기준

□ (5만원권 보유 이유) 기업의 5만원권 보유이유로는 일상적인 운영자금 지출(86.8%), 휴대·사용 편의성(60.2%)이 높으며, 비상시 대비(17.3%), 저금리(11.3%) 등은 낮게 나타남

5만원권 보유 이유별 응답비중¹⁾



주: 1) 5만원권 보유중인 기업 기준, 3개까지 복수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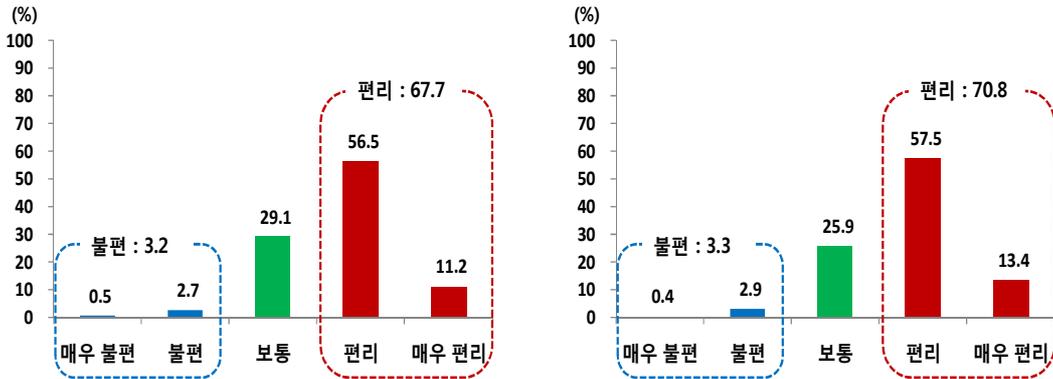
- (5만원권의 편의성) 5만원권이 거래적 용도와 예비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남

○ 예비적 용도(70.8%)와 거래적 용도(67.7%)의 편의성이 비슷

5만원권 편의성 평가

(거래적 용도 : 지급 수단)

(예비적 용도 : 가치 저장 수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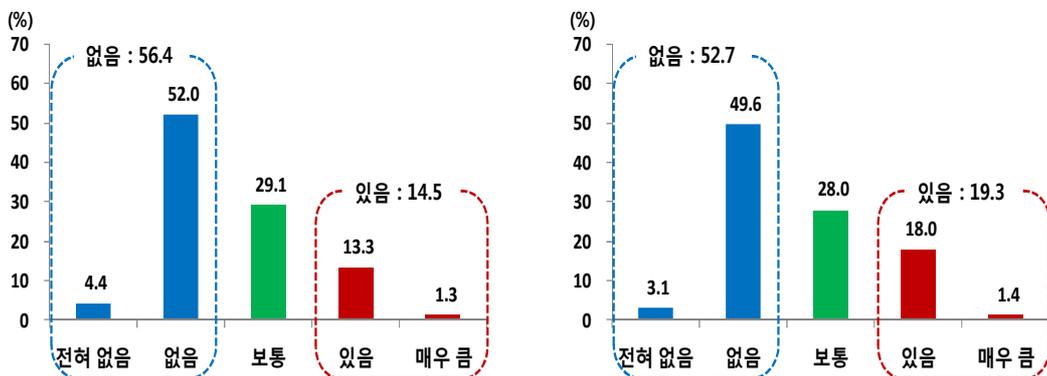
- (현금 추가보유 의향) 향후 금리 하락 및 경제 불확실성 확대시 현금 수요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각각 14.5%, 19.3%로 나타남

○ 보유현금 확대시 선호 권종으로는 5만원권이 각각 90.6%, 92.9%를 차지

현금 추가보유 의향

(예금금리 하락시)

(경제 불확실성 확대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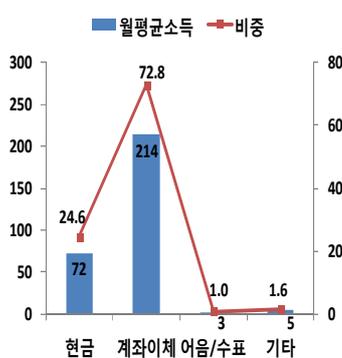


2. 현금 취득 현황

(가 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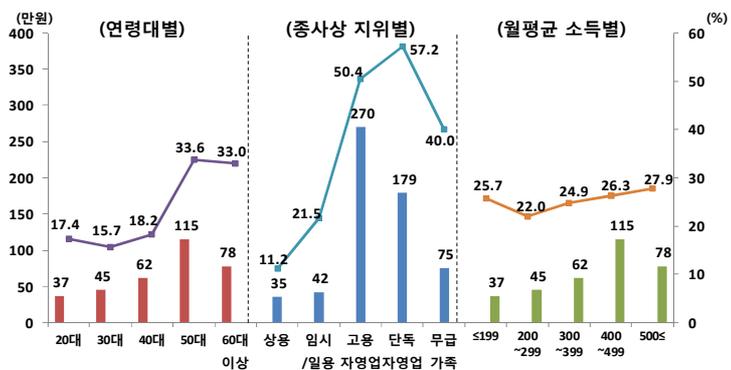
- (월소득중 현금취득비중) 가계 월평균 소득(294만원)의 취득방법을 지급수단별로 보면 계좌이체(72.8%, 214만원)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금이 24.6%(72만원)를 차지
 - 연령대별로는 50대(33.6%)와 60대 이상(33.0%)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소득 중 현금취득 비중이 높게 나타남
 - 종사상 지위별로는 단독 자영업자와 고용 자영업자의 비중이 57.2%, 50.4%로 높은 반면 상용근로자의 현금취득 비중은 11.2%로 가장 낮음
 - 월평균 소득별로는 계층간 차이가 크지 않음

월소득의 지급수단별
취득금액 및 비중¹⁾



주: 1) 월소득 대비 비중

계층별 현금취득액¹⁾ 및 비중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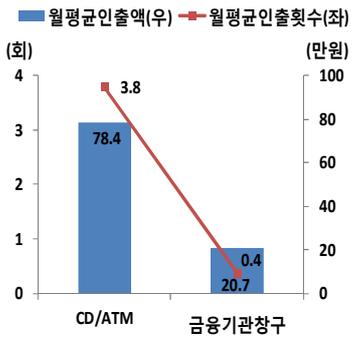


주: 1) 현금취득액은 좌측, 2) 실선은 월소득 대비 비중(우측)

- (금융기관을 통한 현금인출 행태) 가계는 금융기관 창구보다는 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
 -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월평균 인출횟수(3.8회) 및 월평균 인출금액(78.4만원)이 금융기관 창구(0.4회, 20.7만원)에 비해 훨씬 많음
 - 권종별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경우 만원권(13만원)이 5만원권(8만원)보다 많은 반면 금융기관 창구의 경우 5만원권(31만원)이 만원권(19만원)보다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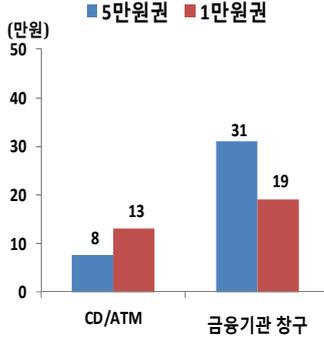
-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현금인출액은 고용 자영업자(213만원) 및 단독 자영업자(113만원)가 많음

인출경로별 현금인출액횟수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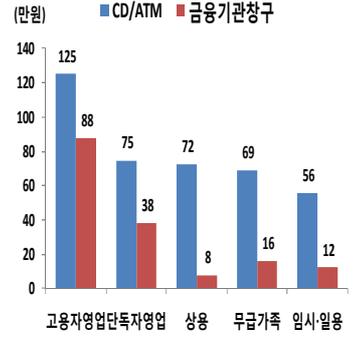
주: 1) 해당 인출경로 응답 가구 기준

권종별 현금인출액¹⁾



주: 1) 해당 인출경로 응답 가구 기준

종사상지위별 현금인출액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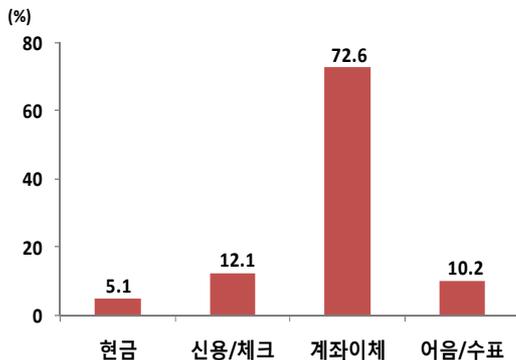
주: 1) 평균 인출액에 월평균 인출 횟수를 곱하여 계산, 전체 가구 기준

(기 업)

- (매출액중 현금취득비중) 기업의 월평균 매출액을 지급수단별로 구분하면 계좌이체(72.6%), 신용·체크카드(12.1%), 어음·수표(10.2%) 순이고 현금취득비중은 5.1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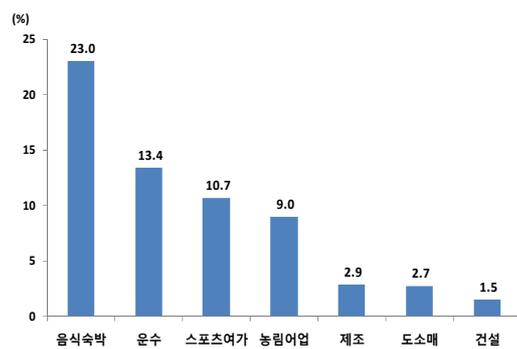
- 업종별 현금취득비중은 음식숙박업, 운수업, 스포츠·여가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소매업, 건설업 등이 낮은 편

지급수단별 현금취득비중¹⁾



주: 1) 월매출 대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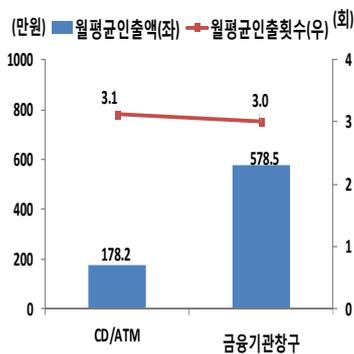
업종별 현금 취득비중



- (금융기관을 통한 현금인출 행태) 기업은 가게와 달리 현금자동입출금기보다 주로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현금을 인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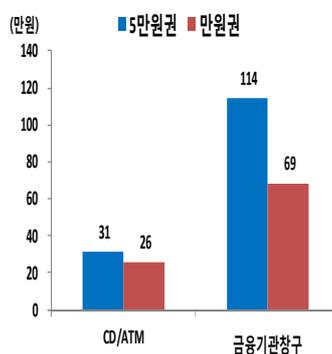
- 월평균 인출횟수는 현금자동입출금기(3.1회)와 금융기관 창구(3.0회)가 비슷한 반면 월평균 인출금액은 금융기관 창구(578.5만원)가 현금자동입출금기(178.2만원)에 비해 훨씬 많음
- 권종별로는 금융기관 창구의 경우 5만원권(114만원)이 만원권(69만원)보다 훨씬 많은 반면 현금자동입출금기는 5만원권(31만원)과 만원권(26만원)이 비슷
- 업종별로는 운수업, 제조업은 금융기관 창구를 주로 이용한 반면 음식숙박업, 농·임·어업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주로 이용

인출경로별 현금인출액·횟수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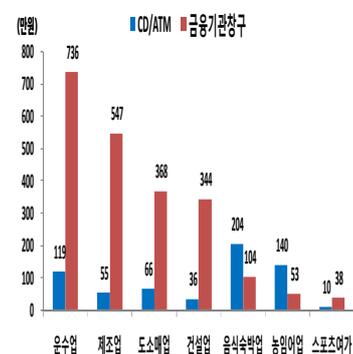
주 : 1) 해당 인출경로 응답 기업 기준

권종별 현금인출액¹⁾



주 : 1) 해당 인출경로 응답 기업 기준

업종별 월중 현금인출액¹⁾



주: 1) 평균 인출액에 월평균 인출 횟수를 곱하여 계산, 전체 기업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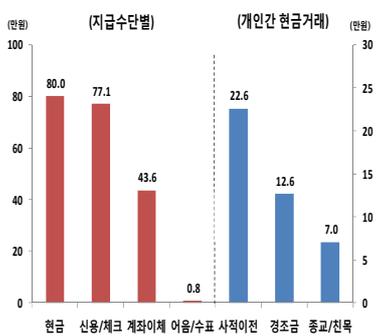
3. 현금 지출 현황

(가 계)

- (현금지출비중) 월평균 지출액[■](206만원)을 지급수단별로 보면 현금[■](80.8만원, 38.8%) 및 신용·체크카드(77.1만원, 37.4%)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계좌이체(43.6만원, 21.2%) 순
 - 월평균 소득에서 저축, 보험료, 세금,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조사
 - 현금지출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① 조사대상이 가구주인 점과 ② 개인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지출에 대하여 설문한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
- 현금지출액의 절반 가량(52.8%)은 사적이전(22.6만원), 경조금(12.6만원), 종교 기부금 및 친목회비(7.0만원) 등 개인간 거래(42.3만원) 용도로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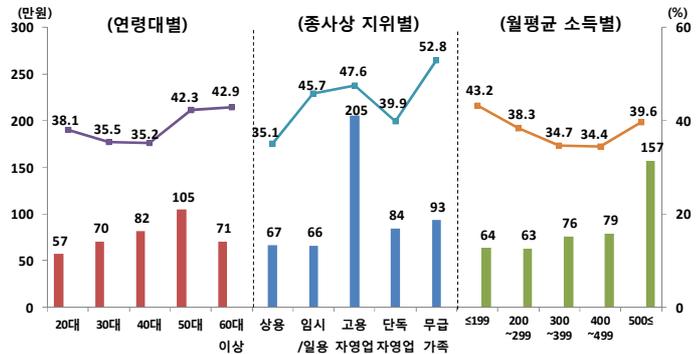
- 연령대별로는 50대(42.3%) 및 60대 이상(42.9%)이 높게 나타남
- 종사상 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(52.8%) 및 고용 자영업자(47.6%)의 현금지출비중이 여타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
- 월평균 소득별로는 199만원 이하 계층(43.2%) 및 500만원 이상 계층(39.6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

지급수단별 및 개인간 현금거래 종류별 지출액¹⁾



주: 1) 사적이전은 부모, 자녀 등의 용돈 및 생활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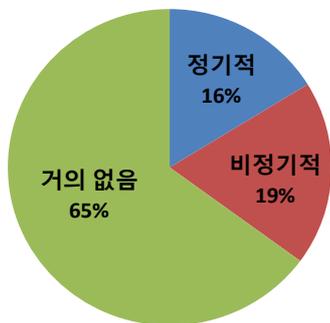
계층별 월평균 현금지출액¹⁾ 및 비중²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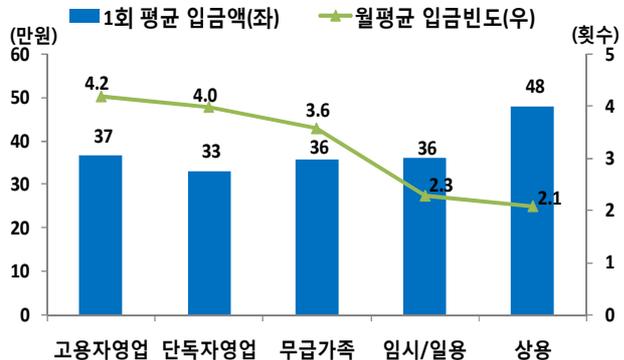
주: 1) 현금지출액은 좌축, 2) 실선은 월평균 전체 지출액 대비 비중(우축)

- (금융기관으로의 현금입금 행태)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입금 빈도를 보면, 2/3 가량(64.9%)은 입금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가구 비중은 각각 16.2% 및 18.9%로 나타남
-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가구의 월평균 입금빈도는 자영업자가 4회 가량으로 상용근로자(2.1회) 및 임시·일용근로자(2.3회)에 비해 높음

최근 1년간 금융기관 입금 빈도



월평균 정기입금 빈도 및 평균 입금액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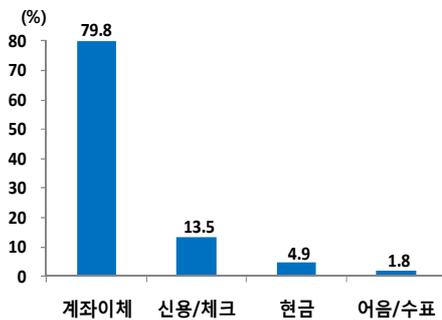


주: 1)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가구 기준

(기 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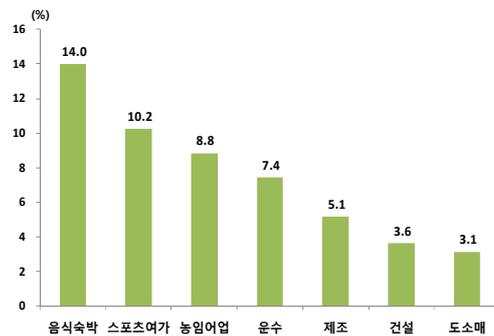
- (현금지출비중) 기업의 월평균 지출액을 지급수단별로 구분하면 계좌이체(80%)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용·체크카드(14%), 현금(5%) 및 어음·수표(2%)의 순
- 업종별 현금지출비중은 음식숙박업, 스포츠·여가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, 건설업 등이 낮은 편

지급수단별 현금 지출비중¹⁾



주: 1) 월평균 지출액 대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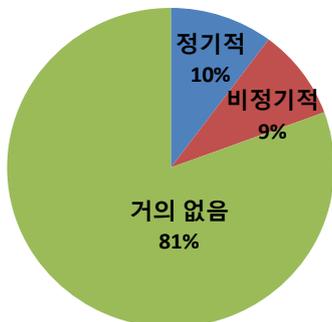
업종별 현금지출 비중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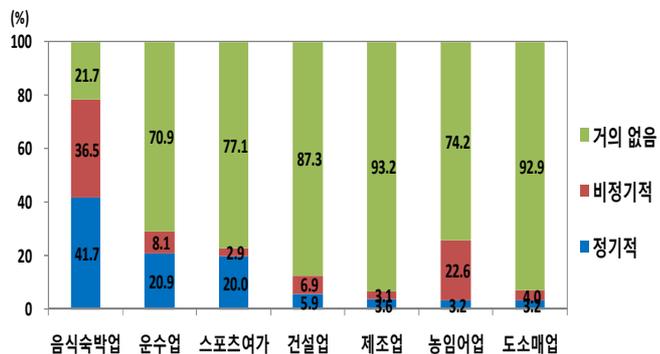
주: 1) 월평균 지출액의 현금지출액 비중

- (금융기관으로의 현금입금 행태)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입금 빈도를 보면, 4/5 가량(80.6%)은 입금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기업 비중은 각각 10.2% 및 9.2%로 나타남
-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금융기관 입금 빈도(78.3%)가 매우 높은 반면 건설업, 제조업, 도소매업의 입금 빈도는 매우 낮음

최근 1년간 금융기관 입금 빈도



업종별 금융기관 입금 빈도¹⁾



주: 1) 최근 1년간 기준